

장리상

구전사

▶ 심예린, 채승현, 김시후, 이승하(삼평중학교)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영상

지Go알Go-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까?



팀 소개 인사 및 각오

안녕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정보들의 진실을 파악하는 구전사 팀의 채승현, 심예린, 이승하, 김시후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의를 해오던 저희들은 삼평중학교에서 '디지털 문해력과 문예창작'을 배우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커리큘럼 중 팩트체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허위조작정보를 근거를 제시하며 하나씩 깨는 활동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을 보신 선생님께서 체커톤 대회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팀의 이름에 대해 설명하자면, '구전사'란 대개 '아홉 명의 전사'라는 뜻으로 오해하시기 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팀의 '구전사(口傳士)'는 '말로 전하여 내려옴'의 뜻을 가진 '구전'과 '직업'을 뜻하는 접미사 '-사'의 합성어로 소문으로 전해지는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정보들을 조사하고 진실을 파악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저희는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전사'라는 저희 팀 이름에 맞게 무조건 정보를 믿는 대신, 저희가 먼저 팩트체크를 실천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진실된 정보를 꼭 찾겠습니다. 구전사 팀, 잘 부탁드립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주제 : 경제와 관련된 잘못된 지식이나 신념, 근거 없는 정보

현재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경제적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유 : 디지털 문해력과 문예창작 수업을 학교 주제 선택 시간에 하며 부정적 인식에 관련한 언론과, 현실을 왜곡하여 내보내는 언론들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팩트체크 대회 주제를 접하고 먼저 떠올린 것이 현재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인구 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외국의 사례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미디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미디어와, 잘못된 사고를 확산시키는 미디어 중 어느 것이 현실과 가장 가까운지, 앞으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이며 “내 시대의 사회는 내가 만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주제와 관하여 팩트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조사정리 방법

- 전문성 있는 미디어 자료(뉴스, 신문기사, 논문,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통계자료, 전문 기관 및 관련 기관) 정리
- 전문가 및 교수에게 전자 우편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받아 자료 수집 후 팩트체크하며 답변 보충하기(찾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 학교에서 학생 및 선생님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생각을 다양한 항목을 제시하며 설문하기
-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고 올바른 인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기

2. 분석 방법

- 비판적 근거를 두고 분석하기(제시한 정보를 CMS분석법에 따라 분석하기)
-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래프 등 자료로 만들기
- 신뢰성 있는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비판적 분석하기
- 청소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미디어와 차이점과 공통점 분석하기
- 분석한 자료와 다른 기준을 제시한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완하기

<기획 단계>

심예린: 반론재반박 디베이트 준비, 인터뷰 질문 정리, 설문조사 진행, 논문 조사
채승헌: 인터뷰 질문 조사, 보고서 정리, 설문조사 진행, 설문조사 통계자료 작성,

뉴스 근거 조사

이승하: 뉴스 근거 조사, 인터뷰 질문 정리, 논문 조사, 설문조사 진행

김시후: 뉴스 근거 조사, 설문조사 진행

<조사 단계>

통계 자료: OECD, 통계청, 고용노동부, KBS방송문화 연구소, 직접 설문 등.

논문 자료 / 미디어 자료: 다큐멘터리K-인구 대기획-초저출생 1부《0.78 이후의 세계》 | EBS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의 날, 법무부 보도자료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확정, 팩트체크 K, SNU팩트체크, BBC News 등.

인 터 뷰: 안산텔레보 김하준씨, 최영섭 교수님(이메일),
김진영 교수님 서용섭 교수님 외 20분 (시도)

설문조사: 교내 스티커 설문조사, 교내 외국인 노동자 인식 설문조사,
교내 포스터 (PPT) 홍보

<확산 단계>

1. 외국인 노동자 인식 조사 및 결과물을 통한 인식 재고(스티커 설문조사 및 캠페인 활동)
2. 외국인 노동자 팩트체크를 통한 프리젠테이션(프리젠테이션 자료 확산/수업 활용)
3. 외국인 노동자 인식 재고를 위한 포스터(학교 내 공간 제시)
4. 누리소통망을 통한 확산(개인 및 단체 누리소통망 계정 활용)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1. 한국교육방송공사-다큐멘터리K

인구 대기화-초저출생 1부《0.78 이후의 세계》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의 날

 **요약:**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하다. 젊은 층이 줄어들면, 한국의 여러 부분이 흔들리고, 사라진다.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년층, 그리고 기계의 노동이 증가한다.

핵심 문장: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주 비정상적인 수치이다.

2. 한국방송공사 팩트체크K

①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요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라는 정보를 믿고 있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인력 부족한 직종(3D 직업)의 노동력을 보완해 주고 있다.



핵심 문장: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것이다.

② 외국인력 없이는 정말 '뿌리산업' 지탱이 힘든가

 **요약:** 뿌리 산업, (기초 공정 기술)의 대부분의 노동력 비율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내국인들의 대부분이 지원 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핵심 문장: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뿌리 산업이 진행되기 힘들다.

③ 건설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

요약: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을 장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의 연령대가 내국인 보다 다양한 것뿐이 노동자 수는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하지만 젊은 층이 많아 도움이 많이 된다.



핵심 문장: 외국 인력은 부족한 젊은 층 노동자를 보완하고 있다.

④ 외국인력 알선 정책이 되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나

 **요약:**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기도 하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 처우를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 문장: 팩트체크K는 '고용허가제가 되레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⑤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요약: 재외동포와 비전문취업자의 다수가 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또한, 단순히 일부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핵심 문장: 팩트체크K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이라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⑥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할까

요약: 일부 국가는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 차별과는 무관합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은 외국인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하지 않는다.

핵심 문장: 우리가 흔히 ‘주요국’,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위원회와 OECD, ILO 자료를 종합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

⑦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까?

요약: 전체 범죄자 수 중 외국인 근로자는 매우 적다. 하지만 살인, 강도 비율은 더욱 높다. 그리고, 마약 투약률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

핵심 문장: 팩트체크K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국내 범죄자 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 안팎이고, 인구 대비로 봐도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⑧ “이주민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 독일이 이주민 통합에 나선 이유는

요약: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좋다.

핵심 문장: 독일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인력이 필요하고, 미래에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든 아니든 여러 경로를 통해 독일로 오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3. 영국방송공사(BBC) 뉴스 코리아

한국 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경제적 효과는?

요약: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관리 비용 증가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문장: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없는 국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를 뺀다면 한국은 아마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논문 자료: 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1.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64&fn=temp_1709598721997100

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보도자료

https://www.mrtc.re.kr/community/05.php?admin_mode=read&no=26017&make=&search=&type=&apply_no=&table_name=trend03_1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①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② (안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 ③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④ (인권)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⑤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참고 2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핵심 정책 목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 구현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중점 과제	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③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① 이민질서 위한 대응체계 확립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①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할 배양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①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② 여성·어류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① 국가비전과정에 수렴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방략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 1~3차 기본계획

- 노동력 충원 목적

※ 4차 기본계획

-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 숙련 인력,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 양성하여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

-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 한국어 교과 및

-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

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 국가 연구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우수 해외 외국인 연구자 유치
- 단기 순환에 따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혁신적으로 확대* 및 개선
-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OASIS*)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 개발인재 육성 등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보고서: 고용노동부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 (2017년~2022년)

<https://www.data.go.kr/data/3038237/fileData.do#>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 2023.03.08 보도자료 내용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245>

논문 1: 한진희, 최용석 (2006) /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15134>

논문 2: 남성일, (2013)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5197>

논문 3: 김정호, (2017) /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06332>

논문 4: 이규용 외, (2014) /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8.php?admin_mode=read&no=407&make=&search=&s_url=

논문 5: 이종관, (2020)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6926

논문 6: 노호창, (2021)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3&wr_id=2572

논문 7: 노호창, (2019)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시의 법적 쟁점’

https://www.mrtc.re.kr/data/03.php?admin_mode=read&no=563&make=title&search=%EA%B3%A0%EC%9A%A9%EB%B6%80%EB%8B%B4%EA%B8%88&s_url=

논문 8: 한국고용정보원, (2022) ‘최근 구인난 현상과 원인 진단’

<https://www.keis.or.kr/user/extra/main/3878/publication/report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26&pubIdx=8992&reportIdx=5863&spage2=1>

논문 9: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책토론회 보도자료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eq=207&seq=152244>

관련 사이트 조사

통계 1: 여성가족부 /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https://www.data.go.kr/data/15048449/fileData.do>

통계 2: 법무부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보고서(2017년~2022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400&bid=11109>

통계 3: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vw_cd=MT_ZTITLE&list_id=B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전문가_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경제학 박사 최영섭 교수님

1. 외국인노동자의 영향

Q.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어느 정도가 좋으며 국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어야 좋을지는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워낙 다양해서 쉽게 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아래의 답변들을 참고하세요.

2. 외국인노동자의 부정적 영향 및 사회적 갈등

Q1. 사람들은 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 가장 큰 이유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노동자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한국인의 그것과 달라 한국인의 고유한 생활 및 사고방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2.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그리고 어떤 선입견이 있나요?

-> 위에서 얘기한, 내국인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거나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크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 근로자나 무슬림 근로자의 범죄율이 높다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범죄도시 등의 영화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악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이유 없이 조선족을 폄하하거나(사실 이들은 일제시대 어려움을 피해 만주로 이주했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갔던 조상들의 후손들로 절대로 폄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사원 건립을 강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외국인 노동자가 가진 단점(대부분이 불법 취업자,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 경제구조의 근대화 지연, 경제, 사회의 이중구조와 국제관계의 위험 부담, 기존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문제점 등)이 사실인가요?

-> 외국인 노동자의 많은 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

때문에 출발되었습니다. 당시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식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배우는 연수생이라는 지위를 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 가기 싫어하는 열악한 조건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오래도록 일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 입장에서는 한국의 임금이 어쨌든 자기 나라에서 받는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일단 연수생으로 들어온 후, 불법 체류자가 되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사업주들도 당장의 일손 부족을 벗어나기 위해 불법 체류자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저임금의 불법 체류 외국인 혹은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그런 근로자들에게만 의존해서 계속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를 기업들의 근로 여건이 한국인이 많이 가는 기업의 근로여건보다 현저하게 나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주로 근무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대표적으로 반월 시화 안산 지역의 경우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이 몇 명 근무하다가 이제는 아예 한국인 근로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6.24일 발생한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에서도 대부분의 희생자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는 점을 참고)

또한 이들의 일자리는 임금이 낮고,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여건은 나쁜 일자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든 합법이든 한국인은 일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자리들에서 일할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는 자동화 등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일자리와, 한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일자리들의 근로여건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화를 저해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화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이며, 그들을 채용해서 활용하되 공정 개선 등에 소홀했던 기업들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3. 외국인 노동자의 긍정적 영향

Q1.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이득은 무엇인가요?

한국인 근로자가 일하지 않으려는 일자리에서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더 싸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가설이 진실인가요?

-> 기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장 싼 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물론 최소한의 생산성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더 싸다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선호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임금 차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최저 임금도 동일하게 적용)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실제로 뺏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기업에서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일자리에 외국인들을 배정하고 있으므로(기업에서 내국인 채용 노력에도 내국인 채용을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기보다는 내국인 기피 일자리를 채워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물론 일부 기업에서 내국인에 대한 채용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외국인을 받으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100% 보안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Q3.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어떠한 근거가 있나요?

-> 이론적으로는 사회에 꼭 필요한 경제 활동이지만 일손이 없어 해당 분야가 운영되지 못해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분야에서 일하게 되면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농번기에 명충의 일손부족이 심각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러한 일손부족을 덜어줍니다. 또한 간병, 육아, 돌봄 일자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도 내국인 근로자들이 가지 않는 일자리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일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혀 일할 수 없게 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4. 해결방안

Q.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에 계속 의존한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발전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자리들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되, 이들 일자리 들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시적인 인력 부족도 해소하면서 장기적인 구조 고도화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5. 다문화

Q1. 외노자가 다문화 사회의 형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사람들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면 우리 사회의 외국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외노자가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및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나요?

-> 최근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계 시민 의식은 의외로 낮습니다. 외국에서라면 명백하게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외국인 폄하 발언이나 외모 비하 행동 등을 하는 경우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 (백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흑인 등 포함) 까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뿐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전 세계 시민 모두에 대한 개방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강해질 것이며 한국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외노자의 피해/인권

Q1.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왜)(어떻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이직이 쉽지 않으며(사업주가 동의해야 함), 이직 횟수도 제한(최대 3회-이는 팩트 체크 해봐야 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옮겨 가기 위해 원래 사업장에서 피를 부리거나 회사에 저항하는 경우 등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나 장시간 근로 등의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 재해, 성폭행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할 사람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처우받으며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단순 일자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단순 인력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공정 개선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 일자리에만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2등 시민 취급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외국인 근로자 숫자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내국인과의 갈등만 가져올 것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싸고 건전한 경쟁과 보완 관계를 이루게 된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주어진 개수의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자체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IT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국, 인도, 등의 우수 인재가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NVIDIA와 AMD 모두 중국계가 대표이며, 구글 등에도 인도계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일자리에 대한 외국인 의존을 줄이고, 외국인력도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전체의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노동경제 응용미시 김진영 교수님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문술 미래 전략 대학원 서용섭 교수님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용주_주식회사 엠아이엔씨(제조업) 대표 유복선 님

Q1.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신 이유는?

->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해졌지만 고생을 겪은 부모 세대들이 고생을 겪을만한 노동 현장에는 자식들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은 어려운 엔지니어 기술이나 더럽다고 여겨지는 기술적인 종목,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장 등에 대한 의욕도 없고 이렇다 보니 그런 현장에는 외국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제조회사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2.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얻으신 점은?

-> 물론 단점도 있지만, 저의 입장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국인들이 일하지 않으려는 현실에서는 외국인마저 없다면 사업장을 운영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산업 혁명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제조업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생산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떨어지지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세월이 지나면서 숙련도가 높아져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3.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차이점은?

-> 당연히 다릅니다. 인종도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또 한국인이 자라는 패턴과 외국에 있는 그런 한국보다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환경 때문인지 다양한 차이점은 보입니다.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배워서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에 와서 많은 도움 받고 문화를 배우고 관점을 바꾸며 일을 하면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내국인 노동자와 월등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4.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생각은?

->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는 잘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었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변화할 점을 말하자면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행복해야 하니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서비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면 생산성이거나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한다면 교육,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Q5.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인종은 다르지만,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와서 근로자로서 일을 해 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려는 욕심과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6. 포천의 경제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포천은 작은 중소기업 형태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내국인들을 고용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업은 규모를 줄이고 축소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장 포천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힘든 과정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영업과 물건을 원활하게 생산하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사가 잘 돼야 하는데 고용이 없으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포천시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함으로써 기업이 잘 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기업이 통합적

으로 소통할 때 경제 발전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영상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의용소방대 대장_ 김하준 님

Q1.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 출신 뻬속 깊이 한국인 김하준이라고 합니다.

Q2. 한국에 오시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특별한 계기는 따로 없어요. 그냥 한국에 친구 따라 왔다가 이렇게 정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여행으로 왔었다가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되고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Q3. 한국에 살면서 겪은 일들이 있나요?

-> 저는 한국에 한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오히려 좋았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정이 많았고 쉽게 다가오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외국인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바빠다 보니까 여유가 없을 테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그런 거 없어졌어요. 또 어려운 점은 일단은 뭐 이게 말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 피부 차별이 아직도 조금 있고,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씩 많이 없어져 가고 있지만 아마 좀 더 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Q4.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특별히 공부하거나 배워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일단 언어의 벽을 넘어야 해요. 언어를 무조건 알아야 만 이 나라의 문화와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정착하려면 첫째는 언어, 둘째는 문화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 문화, 그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왜 이 나라가 잘 발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 가면 쉽게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5. 한국의 언어나 문화 같은 것들은 어떻게 배우게 됐나요?

-> 아 이게 슬프고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자마자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겼어요. 사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결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 나라에 살아 남았구나, 이 나라를 깊이 알려면 언어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독학으로 혼자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Q6. 학원 같은 거 안 다니시고 혼자 배우신 거예요?

-> 그때 학원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외국인들을 이렇게 한국을 가르치는 기관도 별로 없었고요. 학원도 없었고요 그냥 뭐 가나다라 영어로 이렇게 설명되는 A4 용지 하나

가 있었어요. 그 용지 한 장이 제 인생에 그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Q7. 한국에서는 안산 다문화 소방대 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던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 아 우리 일단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다문화 이용 소방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 쪽으로 소방관들하고 더불어서 도움이 돼가면서 지역의 안전에 대해 도와주고 있고요. 또 안산은 알다시피 좀 안산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도시에 보면 다문화 외국인들 많이 와 있어요. 이주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일들은 많아요. 뭐 화재가 이렇게 요새 보면 화재도 많이 나고 또 그러다 보면 안전 교육이 별로 없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화성에서도 공장 불나서 외국인 분들 많이 죽고 또 작년에도 안산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한 가정에 아이 네 명 죽었어요. 외국인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부천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외국이라는 환경에서는 불나거나 뭐 안전에 대한 문제 생기면 이 이주 노동자 외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 다문화를 이렇게 전문 의용 소방대가 뭐냐면 일단 언어로 도와주고 있고 이분들 안전에 대한 이분들 언어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전에 대한 교육도 좀 이렇게 많이 시켜드리고 또 곧 있으면 추석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외국 친구들은 어디 멀리 안 가요. 그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렇게 그냥 뭐 고기 구우면서 기름 튀기고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몰라요. 그니까 그거에 대해 우리가 미리 캠페인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행동들 이렇게 다문화 이제 의용 소방대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Q8. 그러면 이 소방대가 언제부터 시작된건가요?

-> 작년 6월달에 이제 우리가 발대식을 했고요. 지금 14명 아 17명이 있는데 10개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요.

Q9. 그럼 안산 말고도 다른 지방에도 시행되고 있나요?

-> 다른 지방에는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니까 처음으로 먼저 우리가 안산에 생긴 거고요. 예 또 잘 이렇게 너무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요. 너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또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좀 도전하고 있어요. 이걸 좋은 일이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안전에 대한 교육 잘 받고 또 안전하게 돈 벌어서 자기 나라 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Q10. 특별히 설립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작년엔 설립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 안산에 그 화재가 제일 큰 계기가 됐어요. 그 외국인 아이들 한 가정의 아이들 4명을 하늘나라로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방관자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생각해낸게 아마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져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는데 다문화 소방대를 만들면 어땠냐 해 가지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한테서는 다른 단체도 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냐 해서..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저희가 이제 인원들 모집해서 준비했습니다.

Q11. 소방대의 목표나 신념 같은 게 있나요?

-> 목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안전에 대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안전에 대해 알고 안전하게 한국에서 돈 벌고 자기 나라 가고 또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저희 목표예요. 어, 항상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와서 다문화 가정들, 결혼해서 정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전에 대해 잘 모르고 또 그 문제가 생길 때 119에다 전화해야 될 것도 몰라요. 어디에다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널리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 목표는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다. 앞으로 어떤 나라 어떤 문화가 와도, 진짜 마음 편하게 안전 교육받고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목표가 이렇게 컸습니다.

Q12. 인식 개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 그런 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문화 관련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학교에서 많이 볼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는 다문화 아이들 다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편해요. 그런데 이전 세대 분들은 아직도 다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셔서 외국인들 보면 약간 아직도 좀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 분들 만큼 또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문화도 이런 부분을 잘 관리

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닌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Q13. 저희가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대회의 참가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에서 보는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나 다문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다문화 분들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한국에서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 분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문화 관련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백 명이 열심히 하는데 한 명이 잘못하면 욱먹게 돼요. 네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예 그런 거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나 다문화 관련이 이렇게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모습 나오면 저희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Q14.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아, 우리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도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노력 하는 것 되게 감사 하고요. 이 다문화 사회가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회가 됐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다문화와 함께이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피부 차별이나 특별히 언어와 단어 들을 외국인한테 쓰는 거하고 한국인한테 쓸 때가 좀 달라요. 그런 차별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에서 또 세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다문화가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지금 이 사람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잘되면 예를 들어서 언어 습득에 장점 갖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나라에 대한민국을 알려주는 것은 쉬워요. 이분들 한국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또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앞으로 다문화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물론 부족한 거는 많지만, 조금씩 소통해 가면서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될 사회에서 이해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다문화 분들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좀 자제하고 또 이해를 해가면서 이 문화를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영상▶



외국인 노동자_ 네팔 외국인 노동자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음)



출신: 네팔

한국에서 하는 일: 샤시 가공

사업장과 자신과의 관계: 친구같은 관계

기업에서 자신의 역할: 10점

한국과 외국인 노동자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려면 필요한 것: 문화적

▲인터뷰 영상 환경 조성



면담. 고용주_ 주식회사 엠아이엔씨(제조업) 대표 유복선 님

실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이메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가장 어려운 것이 직원 채용입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사업체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으로 지금은 인력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외국인노동 고용허가제의 정비로 실제 네팔에서 성실한 인력이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번듯한 집을 지어 잘 살고 있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하더군요. 네팔에는 실제로 한국 붐이 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더 좋은 인력의 보급, 한국에 대해 좋은 평가를 듣고 보니 흐뭇해졌습니다. 분명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활동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알 수 있었던 사실

- 1. 인력이 부족한 직종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2. 현장의 상황을 직접 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일자리를 채운다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교내_스티커 설문조사

교내 학생들의 생각을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가. 설문 내용: 외국인 노동자 인식 설문조사 - 기초 - 스티커 설문

나. 설문 일시: 2024년 08월 27~30일 08:10~09:00 (등교 시간 아침 맞이 시간)

다. 설문 장소: 삼평중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 길 77, 13492)

라. 설문 대상: 삼평중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중 18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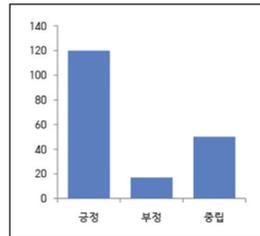
마. 설문 발주자: 구전사(심예린, 채승헌, 이승하, 김시후)

바. 설문 실시자: 구전사(채승헌, 이승하, 김시후, 심예린)

사. 설문 통계 자료 및 통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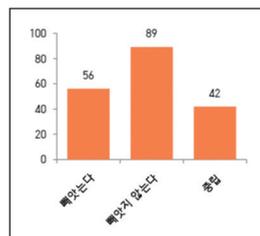
설문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	187	비율
긍정	120	64.17%
부정	17	9.09%
중립	50	2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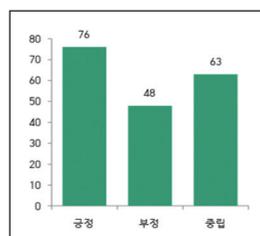
설문2: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계	187	비율
빼앗는다.	56	27.90%
빼앗지 않는다.	89	48.60%
중립	42	23.50%



설문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계	187	비율
긍정	76	40.64%
부정	48	25.67%
중립	63	33.69%



알 수 있었던 사실

1. 청소년층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층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중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진행할 때 환경이 더웠지만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어서 좋았다.

설문조사. 교내 학급_1~3학년 각 학년 중 한 개 학급 및 타 학교 일부

교내 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설문 내용: 외국인 노동자 인식 설문조사 - 기본 - 종이 설문 - 중학교

나. 설문 일시: 2024년 09월 06일 (금) ~ 2024년 09월 11일 (수)

다. 설문 장소: 삼평중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 길 77, 13492) 및 강현중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진미로 54번 길 14, 25001)

라. 설문 대상: 삼평중학교 1~3학년 중 학년별 3반 및 강현중학교 일부 학생 총 82명 (제1학년 4반 학생 중 22명, 제2학년 3반 학생 중 25명, 제3학년 5반 학생 중 28명, 강현중학교 제2학년 동아리 중 7명)

마. 설문 통계 자료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좋지 않은 뉴스나 글 등을 본 적이 있나요?		
응답	수	비율
예	61	74.39%
아니오	21	25.61%
2. 외국인 노동자가 친숙하게 생각되시나요?		
응답	수	비율
예	45	54.88%
아니오	37	45.12%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수 선택 가능)		
응답	수	비율
1)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색하다.	34	28.81%
2)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치안을 악화시킬 것이다.	2	1.69%
3)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25	21.18%

4)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일 것이다.	23	19.49%
5)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28.81%
4. '외국인 노동자'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부정 대답: 29명 / 긍정 대답: 17명 / 중립 대답: 29명		
5.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수	비율
예	42	51.22%
아니오	40	48.78%
6.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선택)		
응답	수	비율
1) 노동력 부족 해소	63	49.22%
2) 인구 부족 해결	22	17.19%
3) 다문화 사회 발전	37	28.91%
4) 우리나라의 다문화에 대한 안 좋은 인식 타파	5	3.91%
5) 도움을 주지 않음	1	0.78%
7.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회사에 입사했을 때 다른 동료와 동등하게 대해 주실 것인가요?		
응답	수	비율
예	76	98.7%
아니오	1	1.3%
8. 근처에 외국인 노동자인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응답	수	비율
예	12	14.63%
아니오	70	85.37%

알 수 있었던 사실

1.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도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어색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가장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종이 설문으로 하다 보니 설문 내용을 집계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교내_일부

가. 인터뷰 내용: 외국인 노동자 인식 설문조사 - 중학교

나. 인터뷰 일시: 2024년 09월 06일 (금) ~ 2024년 09월 11일 (수)

다. 설문 장소: 삼평중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 길 77, 13492)

라. 설문 대상: 삼평중학교 재학생

마. 인터뷰 중 일부 내용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 노동자가 늘어나면 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활동 인구가 상승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일 것 같다.”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길 수 있어 안 좋다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과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국민이나 다름없다.”

알 수 있었던 사실

1.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공장에서 급여가 낮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3D 업종에서 일하는 중동 및 동남아 지역 등에서 온 사람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최저시급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적으며 돈을 잘 못 버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등 거짓 정보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3.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의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등 청소년 층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찾아보기

물어보기

клик해보기

④ 반론의견

반론

RED 팀 : 이승하/심예린

1.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들의 일자리 경쟁률을 높이고, 원래 있던 일자리를 뺏어간다.
2.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의 문화를 잘 몰라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3.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회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Blue팀:채승헌/김시후

재반박

글자를 모두 넣으면 보고서에 다 들어가지 않으므로 Google Docs 주소를 넣었습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저희는 의회식 토론을 하며 반론 재반박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론을 재반박하는 근거



◀ 반론 재반박 근거



◀ 반론 재반박 활동- 디베이트 (의회식 토론)



◀ 토론 영상: https://youtu.be/VUyUFR_vIeE

미디어 콘텐츠

지Go알Go-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까?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 좋은 편견과 인식을 타파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제작했습니다.

🕒 상세설명

미디어 종류

1. 영상 1편 제작(10분 내외, 드라마/다큐멘터리/뉴스/영화 등 장르 무관)
2. 웹툰 1편 제작(40컷 내외)
3. 게임(온·오프라인 게임 - 앱인벤터, 보드게임 등)
 - 제목: 지(知)Go알Go
 - 주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우리나라와 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장르: 영상-지식 정보 전달 영상

스토리 요약 <지(知)Go알Go>

1. 이야기 도입

2.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 제시(신문 기사, 뉴스 활용)
3.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해야 할까?(외국 사례 제시)
4. 관련자 인터뷰
5. 타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상황 제시(외노자 언급)
 - 자막으로 간단하게 제시함.
 - 부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률, 단어의 정의 / 타자 소리 포함)
6.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편견. 차별 등
(덧글과 인터뷰, 외노자 긍.부정적 인식 통계 등 제시)
7. 설문조사 내용 제시
8. 답변(외국인 노동자 관련 전문가 인터뷰/논문/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신문)
9. 의문점, 문제 제기 지금까지의 시사점(이 영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제시
10.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영향 및 장점 제시(외국 사례 제시)
11. 근거 3개 제시(줄거리 요약) -> 결론/느낀 점(감동적인 결말)

제작 방법

전문가 조사 (교수 인터뷰)/직접 관련 기관 방문/신문 기사 및 영상 조사/논문 발췌 등을 통하여 영상을 편집함.

컨셉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지식채널e'를 참고하여 제작함.

용어를 정리하여 사회 문제 조사를 통한 문제 분석을 한 뒤 설문조사 등 자료 더하여 대안지식을 전달을 하는 영상, 영상길이는 8~10분 정도로 기획함.

역할

- 심예린: 기획 담당/나레이션 담당
- 채승헌: 기획 보조/내용 정리
- 이승하: 영상 자료/나레이션 보조/기획 보조
- 김시후: 편집 도움/스토리 보드 작성

추후 계획

영상 편집 전문가에게 지원을 받을 예정(편집의 기초 교육, 편집을 통해 흥미를 끄는 방법)

줄거리

무팩트 섬을 지키는 구전이가 무팩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섬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구전사(심예린, 채승헌, 이승하, 김시후)에게 연락을 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구전이는 구전사에게 바이러스가 퍼져 나오는 거짓 뉴스들을 팩트체크하여 바이러스를 정확히 달라고 부탁을 구했고, 구전사는 구전이에게 팩트체크 방법을 배우게 된다.



1. 교내 등굣길 맞이 스티커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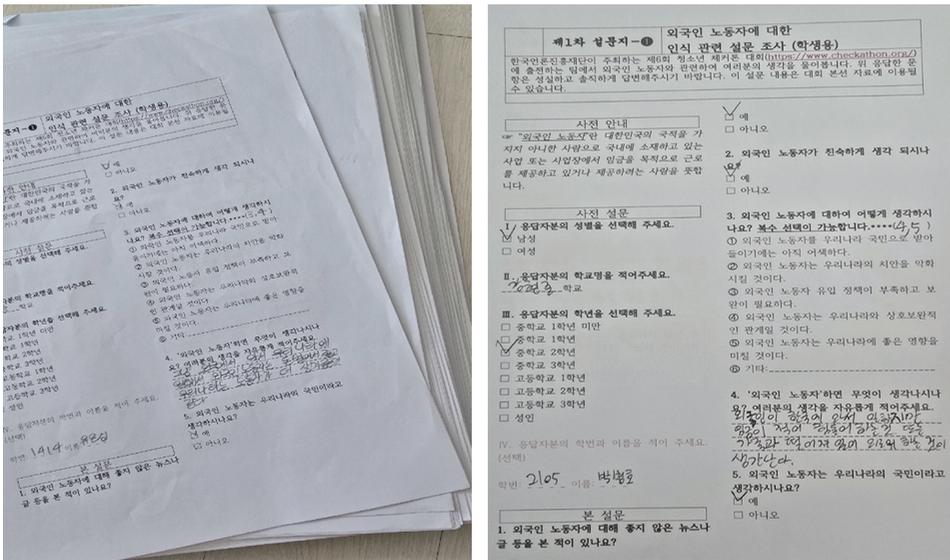
- 일시: 2024년 08월 27일~30일 08:10~09:00
- 장소: 삼평중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 길 77,13492)
- 대상: 삼평중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187명)
- 목적: 삼평중학교 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함.
- 효과: 삼평중학교 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됨. 스티커를 붙이면서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이 됨.
- 활동 사진



2. 중학생 외국인 노동자 인식 종이 설문조사

- 일시: 2024년 09월 06일, 09월 09일, 09월 11일
- 장소: 삼평중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 길 77,13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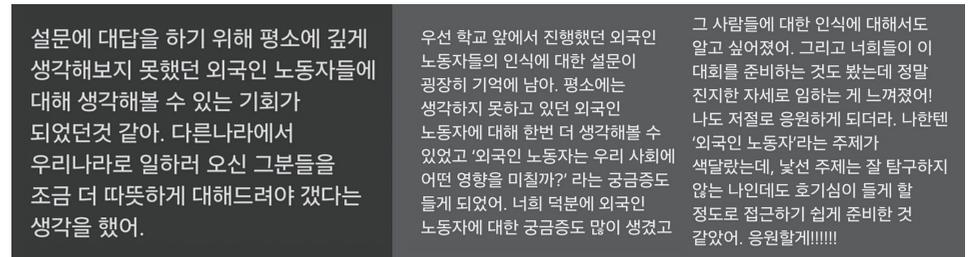
- 대상: 삼평중학교 1~3학년 중 학년별 3반 및 강현중학교 일부 학생 총 82명
(제1학년 4반 학생 중 22명, 제2학년 3반 학생 중 25명, 제3학년 5반 학생 중 28명, 강현중학교 제2학년 동아리 중 7명)
- 목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식 경험 및 친숙도, 개인의 생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 개인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함.
- 효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고 팩트체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됨.
- 활동 사진



3. 팩트체크 확산 운동 (삼평중학교 학생들의 생각 및 소감)

- 일시: 2024년 09월 20일(금)
- 장소: 삼평중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 길 77,13492)
- 대상: 삼평중학교 학생 일부
- 목적: 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간단한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 효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써보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

• 활동 사진



4. 팩트체크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교육 자료 활용 (ppt)

- 일시: 팩트체크 분석 기간
- 장소: 삼평중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 길 77,13492 및 온라인)
- 대상: 삼평중학교 재학생
- 목적: 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음.
- 효과: 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음
- 활동 사진



5. 팩트체크 활동 확산

- 일시: 본선 활동 기간
- 캐릭터: 구전이
- 목적: 구전사탐의 활동을 더 재미있고 친숙하게 알릴 수 있음.



참여소감

심예린

이번 제6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참가하면서 즐겁고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선에서처럼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었고, 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뜻깊은 시간이었지만 본선 준비는 예선을 준비하는 것보다 어려운 점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팀원 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예선을 준비하던 때에는 학기 초였던지라 중간고사나 다른 시험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본선 준비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겹치게 되어 시간 약속을 지키고 또 조율하는 데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한 학원과 숙제 탓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짜증도 늘고 갈등이 자주 생겨 시간을 허비하거나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고, 또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활동 규칙을 정해 일을 효율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끝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문제는 저작권 문제였습니다. 예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한 지식도 없었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선에 진출하고 저작권 심화 교육을 들으며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희 팀 모두 보고서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들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 매니저님, 조혜영 선생님께 도움을 구해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저희가 직접 논문이나 기사 작성자분들께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이메일을 보내 허가를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자료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쌓은 추억들과 즐거운 경험들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위해 안산으로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점심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고 팀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뷰가 끝나고 다문화 거리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중국 전통 빵이나 향신료들을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보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팀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딱히 형식 없이 서툴게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회식 토론을 제안하면서 그때부터는 형식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저희 의견과 팩트체크에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식 토론은 많이 해보았지만, 제가 직접 주최하고, 진심을 다해서 토론을 임한 것은 처음이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커톤 대회를 진행하면서 팩트체크 방법은 물론, 저작권이나 영상을 만드는 법, 협업 능력 등을 배울 수 있어 제가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서도 팩트체크 방법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도록 할 것입니다.

채승헌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는 제6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에 출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선 ‘팩트체크’라는 것을 들어만 보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까지는 몰랐는데 이번 대회를 통하여 방법을 알았으며 또한 팩트체크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하여 심화교육을 하면서 자세히 알아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보고서 자료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하러 외국인 노동자 의용 소방대장님을 면담하러 경기도 안산시까지 가고 심화교육도 받으러 가면서 더욱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친해지다 보니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 등 다른 일정도 많았는데 회의를 하러니 바쁘고 시간이 짧아 힘들기도 했지만 다하고 보니 뿌듯해졌습니다. 또한 예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문가분들이 너무 바빠셔서 이메일 답장을 해주지 않아 한 교수님 밖에 질문을 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습니다. 또한 전화를 드려보려고도 했지만 평일에는 모두가 바빠서 전화를 많은 분께 못 드려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통해 그냥 보던 것이 인터뷰를 하기 까지 노력한 과정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영상편집 기획을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영상을 어떠한 순서로 만들어야 할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선배님 모두가 재미있게 참여해 주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제가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작성할 때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것이 생각나 자료를 만드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하여 아까 말했었는데 심화 교육을 통해 배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조혜영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본선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할 때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신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등 교내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한다면 그때는 인터뷰를 더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토론을 할 때 토론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계속해 나가보니 점점 토론하는 것도 재미있어졌습

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토론은 친구들과 계속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번
에 배운 팩트체크, 저작권, 인터뷰 방법 등은 평소에도 많이 필요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 다른 친구들이나 학생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하러 간 안산에서 다문화거리를 체험하여 더 저희 팀의 주제인 외국인 노동자가
친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심화교육을 끝나고 심화 교육 때 받은 책 등 관련 도서
도 많이 읽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 대회를 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팩트체크에 대해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더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저에게는 첫 대회였는데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승하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한 제6회 체커톤 대화에서 팩트체크를 하며, 3가지
어려웠던 점, 4가지 의미 있던, 혹은 좋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3가지 어려웠던 점은
일상생활에 이 대회를 추가시키는 것, 팀과 의견을 맞추는 것,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 그리고 특히 대회 기간 중 중간
고사 일정이 있어 이 대회를 위한 시간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며 비는 시간에 이 대회를 준비했지만, 학원과 숙제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기
어려웠고, 그 때문에 주말 동안 이 대회를 위해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야 했습니다. 결국,
일상생활이 좀 침해되는 듯해서, 이것을 계기로 시간 관리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팀과
의견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 다들 열심히 해서 의견이 많았고, 그
때문에 의견을 추리는 것이 어렵기도 했었고, 둘째,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것이 저와 팀원
들을 좀 분리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 시험, 대위원회, 프로젝트 등 여러 사정들이 생겨
모임에 늦는 일, 혹은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고, 저 때문에 모임 시간이 조정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둠원들과의 갈등이 조금 생기게 되었
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 제가 시간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일 같기도 하더군요.
이 때문에, 저는 '시간관리 잘하기'라는 목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어려
웠던 점은 '저작권법 위반하지 않기'였습니다. 체커톤 본선 심화교육에서 본 저작권
강의가 도움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해야 할 점들을 더 만들어 힘들어지기도 했습
니다. 체커톤 본선 심화교육에서 본 저작권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저작권 무료 자료
들을 모아둔 자료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사용한 기사와 자료들이 등록되어있지 않았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저작권을 허가해 달라는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으셔서 더욱 어려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체커톤 대화에서 팀원들과 팩트체크와 보고서 작성,
그리고 영상 촬영등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어려웠던 점뿐만이 아니라, 좋고 인상 깊

었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총 4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보고서 작성 등 줄글을 쓸 수 있게
된 점, 둘째, 팀원들과 알아가게 된 점, 셋째, 팩트체크를 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을 한 경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등 줄글을 쓸 수 있게 된
점은 저의 일상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무언가를 작성하게
될 때, 분량을 쉽게 쓰고, 생각을 더욱 잘할 뿐만이 아니라,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던
발표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할 때 줄글을 잘 쓰게 된 게 도움이 된 이유
는, 생각을 잘 나열할 수 있어서 말은 더 체계적으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
습니다. 이 덕분에 반장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둘째
는 팀원들과 더 친해지게 된 점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거는 이번 학년이 시작하며
처음 만났는데, 이 대회를 하며 활동을 하고, 동고동락하며 사이가 매우 좋아졌고, 학교
에서도 사회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팩트체크 방법을 알게 돼서 현실,
일상에서도 팩트체크를 하게 되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어, 믿을
만한 정보와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론 재반박, 그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의 토론을 했을 때, 제 토론 능력, 연설 능력, 그리고 듣기 능력이
오른 것 같고, 평소에는 하기 힘든 경험이라 매우 좋고, 인상 깊었습니다. 종합하자면,
팩트체크 대회는 제가 무엇이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저를 보완해 주었을 뿐 아니라,
경험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저에게 매우 도움 된 경험이고, 다시 참여하고 싶은
대회였습니다

김시후

체커톤 대회에 나가기 전에는 '팩트체크'라는 단어를 뉴스에서나 들어봤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회에 나가볼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중학교 생활에 적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 팩트체크 된 거야?", "팩트체크를 해봐야
겠는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팩트체크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근거가 정확한 정보를 골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해볼 수 없는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좋았습니다. 팩트체크를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만한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들이 인터넷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보게 될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믿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